

요지: 사랑스러운 자녀들아, 오랜 기간 동안 헤어져서 완전한 84생의 역할을 해 온 것은 오직 너희들뿐이다. 너희들은 이제 슬픔의 굴레에서 행복의 관계로 가야 한다. 그러므로 무한한 행복 속에 지내라.

질문: 어떤 자녀들이 계속적으로 무한한 행복을 가질 수 있는가?

대답: 이런 믿음을 가진 이들이다.

- 1) 바바가 우리를 세계의 주인들로 만들려고 왔다.
- 2) 우리의 참된 바바가 저 같은 기타의 참된 지식을 우리에게 주려고 왔다.
- 3) 우리 영혼들은 지금 신의 품 안에 앉아 있다. 우리 영혼들은 이제 몸을 통해 아버지에게 속한다.
- 4) 바바가 우리에게 신봉의 결실인, 구원을 주려고 왔다.
- 5) 바바는 우리를 시간의 세 측면을 보는 자(트리칼다르시)로 만들었다.
- 6) 신이 어머니가 되어 우리를 입양했다. 우리는 신의 학생들이다. 이런 의식과 믿음을 가진 이들은 무한한 행복을 경험한다.

음 산티. 너희 자녀들은 자기가 영혼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신이신, 바바가 우리를 가르치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 자녀들은 아주 행복해 해야 한다. 직접 바바 앞에 오는 영혼은 바바가 모두에게 구원을 주려고 왔다는 것을 이해한다. 그는 모두를 위한 구원의 공여자이며 해방된 삶의 공여자이다. 너희 자녀들은 마야가 반복해서 그분을 잊게 만든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너희는 자신이 바바 앞에 앉아 있다는 것을 안다. 무체인 바바가 이 수레안에 앉아 있다. 회교도들은 말 돌레에 견장을 두르고 나서, 모하메드가 그 말을 타곤 했었다고 말한다. 그들은 그런 상징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는 무체의 바바가 이 사람 안에 화신했다. 너희 자녀들은 많이 행복해 해야 한다. 너희를 천국의 주인과 세계의 주인으로 만드는 바바가 왔다. 바바가 기타의 진정한 신이다. 영혼의 지각은 아버지에게 향한다. 이것이 아버지를 향한 영혼들의 사랑이다. 어떤 자녀들이 이런 행복을 경험하느냐? 오랫동안 헤어져 있었던 이들이다. 바바 자신이 말한다: 내가 너희를 행복한 곳으로 보냈었는데, 지금은 슬픔의 굴레 속에 있다. 너희는 이제 모두가 84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840만 생의 사이클은 어떤 이의 지각에도 새겨질 수 없다. 바바는 너희에게 84생의 사이클을 아주 정확하게 설명했다. 바바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84생을 태어난다. 너희는 이제 영혼인 너희가 신체기관을 통해 듣고 있음을 안다. 바바가 이 사람의 입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그 자신이 말한다: 나는 이 신체기관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그의 이름은 브라마라고 지어져야 한다. 프라자피타 브라마는 인간이어야 한다. 너희는 프라자피타 브라마(인류의 아버지)가 서틀리전에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신이 물질 세계로 와서 말한다: 나는 브라마의 몸에 들어와서 너희를 입양한다. 너희는 너희 영혼들이 신에게 입양되었다는 것을 안다. 몸이 없이는 입양될 수 없다. 영혼은 “나는 이 몸을 통해 당신에게 속합니다”라고 말한다. 저 분이 이 몸을 빌린 것이다. 이 몸은 그분 것이 아니다. 그 영혼이 이 몸으로 들어왔다. 너희 영혼들도 또한 몸으로 들어온다. 바바가 말한다: 내가 이 사람에게 들어왔다. 나는 때로는 자녀가 되고 때로는 어머니가 된다. 그는 마술사이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마술이라고 생각한다. 세상에 있는 신비의 힘은 가짜가 많다. 그들은 크리슈나가 되기조차 한다. 크리슈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이들은 즉시 크리슈나를 볼 수 있을 것이고, 그에게 믿음도 가져서 그의 추종자가 될 것이다. 여기에서는 모든 것이 지식의 문제이다. 제일 먼저, 너희가 영혼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 바바가 말한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이다. 나는 너희 자녀들을 트리칼다르시(시간의 세 측면을 보는 자)로 만든다. 다른 이는 아무도 그런 지식을 줄 수 없다. 신봉의 길의 끝에 아버지가 와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쉬바 링검의 비전이나 변함없이 영원한 빛의 형태의 비전을 본다. 나는 어떤 이의 믿음과 신봉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채워준다. 그러나 그들 중 아무도 나를 만날 수 없다. 그들은 전혀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 너희는 지금 바바가 한 점이며, 우리도 또한 점이라는 것을 안다. 영혼인 나는 내 안에 이 지식을 가지고 있다. 너희 영혼들도 또한 너희 안에 이 지식을 가지고 있다. 아무도 영혼인 내가 지고의 지역에 있다는 것을 모른다. 너희가 와서 바바 앞에 앉을 때는 행복의 전율이 돈다. “오! 지식의 대양인 쉬브바바가 이 사람 안에 앉아서 우리를 가르치고 있구나!” 크리슈나나 고포들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여기에 존재하지도 않고 황금시대에 존재하지도 않는다. 그곳에는 모든 왕자들이 그들 자신의 궁전에 살고 있을 것이다. 오직 아버지에게 와서 유산을 차지하는 자들만이 이런 것들을 이해할 것이다. 너희는 자신 안에 이런 행복이 있어야 한다. 사람들은 “당신은 어머니이며 아버지입니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의 의미를 이해하지는 못한다. 그가 아버지이면, 그러면 누가 어머니인가? 어머니가 반드시 필요하다. 저 어머니에게는 어머니가 있을 수 없다. 이런 비밀이 아주 명확하게 이해되어야 한다. 너희도 역시 아버지를 기억해야 한다. 아버지가 말한다: 너희에게는 어떤 결점도 있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은 노래한다: 나는 미덕이 없고, 어떤 미덕도 갖고 있지 않다.

너희 자녀들은 이제 미덕이 있게 되어야 한다. 너희는 어떤 정욕, 화 또는 몸의 교만함도 가져서는 안 된다. 너희는 지금 여기에 앉아 있다; 너희들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아는데도 어째서 시들해져야 하느냐? 그러나 오직 끝에 가서만 너희의 단계가 확고하게 될 것이다. “만일 초감각적인 기쁨에 대해 알고 싶다면 고평과 고평들에게 물어 보아라”라는 말이 있다. 끝에 가서야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아무도 그들의 시간 중 75%를 초감각적인 기쁨 속에 지낸다고 말할 수 없다. 지금 이때는 커다란 죄의 집이 있다. 죄는 구루의 축복에 의해서나 갠지스 강에 가서 목욕하는 것으로 없어질 수 없다. 오직 끝에 가서야 아버지가 와서 너희에게 지식을 준다. 사람들은 쿠마리가 화살을 쏘아서 그(비삼피타마이)가 죽는 것을 보여준다. 사람이 죽어갈 때, 그에게 마시라고 갠지스 강의 물을 주었다. 여기에서는 너희가 의식을 잃으면, 바바를 상기시켜 준다: 끊임없이 나만을 기억해라. 너희 자녀들은 이런 습관을 들여야 한다. 너희는 누군가에게 상기시켜 달라고 부탁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몸을 떠날 때 자동적으로 바바를 기억해야 한다. 어떤 이의 도움도 없이 아버지를 기억해야 한다. 세상 사람들이 만트라를 주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것이다. 그때가 되면 많은 싸움과 폭력 등이 있을 것이다. 너희는 다른 장소에 있다. 그때에는, 너희에게 “쉬바, 쉬바”라는 말을 하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가 되면, 그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완전한 기억 속에 있어야 할 것이다. 오직 그래야만 너희가 1등의 지위를 차지할 수 있다. 너희 자녀들은 내가 너희의 아버지라는 것을 안다. 나는 이전 사이클에도 너희 자녀들을 아름다운 꽃으로 만들었다. 황금시대에는 꽃과도 같은 아이들이 요가의 힘으로 태어날 것이다. 그곳에는 슬픔을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그 이름 자체가 천국이다! 그러나 바라트의 사람들은 누가 그곳에 사는지를 모른다. 그들은 경전에 히르나카샤파(Hirnakashapa)가 거기에 있다는 등의 많은 이야기를 써 놓았다. 그런 모든 것은 신봉의 부산물이다. 신봉은 처음에는 사토프라단하다. 나중에 그것은 점차적으로 타모프라단하게 된다. 아버지가 말한다: 나는 너희를 하늘로 데려가고, 그런 다음 나중에 점차적으로 내려온다. 인간에 대한 칭송은 없다. 오직 한 아버지만이 모두에게 구원을 주는 분이다. 세상의 구루들은 너희에게 많은 종류의 순례 등을 어떻게 가는지를 가르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계속 하강한다. 비록 미라가 신봉의 길에서 비전을 보았다 해도, 그녀는 세계의 주인이 되지 못했다. 바바는 너희에게 지니(요정)가 되라고 말한다. 나는 너희가 해야 할 일을 준다: 단순히 계속해서 알파와 베타를 기억해라. 만일 너희가 지쳐서 나를 기억하지 않으면, 마야가 너희를 산채로 먹어치울 것이다. 지니가 어떤 이를 산채로 먹어버렸다는 이야기도 있다. 바바가 말한다: 너희가 나를 기억하지 않으면 마야가 너희를 산채로 먹어버릴 것이다. 너희가 기억 속에 앉아 있으면 행복을 느낀다. 바바는 우리를 세계의 주인으로 만들고 있다. 바바가 너희 앞에 앉아 있다. 너희 영혼들이 그의 말을 듣고 있다.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자녀들아, 나는 너희를 해방의 나라로 데려가려고 왔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노력을 하지만,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다. 황금시대는 철시대 후에 와야 한다; 밤이 있는 후에 낮이 있어야 한다. 너희는 오직 우리만이 황금시대에 존재할 것임을 안다. 바바가 다시 한 번 우리에게 왕국의 행운을 주고 있다. 끝에 가면 행복의 수은주가 치솟을 것이다. 마지막 순간에 멸망이 일어날 것이다. 너희는 계속해서 초연한 관찰자로서 모든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불필요한 피흘림이 있을 것이다. 모두를 죽이려고 아주 많은 폭탄들을 만들었으니, 사람들이 무슨 범죄를 저지른 것이냐? 물론 모두가 죽을 것이다. 비용이 많이 든다. 그들을 통해 멸망이 일어난다는 것이 드라마에 정해져있다. 많은 다른 종교들 중에서 한 종교가 지배할 수는 없다. 무수히 많은 종교들이 지금 파괴되고 하나의 종교가 세워진다. 너희는 우리가 바바의 슈리마트를 따름으로써 왕국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안다. 저 사람들은 혼란을 하려고 들판으로 나간다. 그들은 자신이 죽이거나 아니면 죽어야 한다고 믿는다. 여기에서는 그렇지 않다. 너희는 바바가 왔다는 것에 대해 많이 행복해 해야 한다. 바라트의 고대 라자 요가를 가르쳤던 분은 무체의 신이었다. 사람들이 그 이름을 바꿔서 크리슈나의 이름을 말했다. 산야시들은 그들의 요가가 고대의 요가라고 믿는다. 모든 것이 너희에게 아주 명료하게 설명되었다. 자녀들아, 나를 알아보겠느냐? 나는 너희의 아버지이다. 나 하나만이 정화자이며 지식의 대양이라고 불린다. 크리슈나는 불순한 세상으로 들어 올 수 없다. 사람들은 크리슈나가 동시대에 있는 것으로 그려 놓았다. 그것은 아주 큰 실수이다. 사람들은 완전히 타모프라단하게 되었다. 나는 모두를 해방의 나라로 데려가야 하는 때에 온다. 너희는 자신이 공부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우리는 신의 학생이다. 계속해서 이것을 되새기면, 행복의 전율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바바는 너희 자녀들이 지식의 개념을 이해하게 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왜 그것들을 잊어버리느냐?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바바”라고 말하기 시작한다. 너희는 자신이 상속자라는 것을 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할아버지를 기억해라. 바바는 “자녀들아, 정욕은 아주 큰 적이다”라는 지시를 내리고 있다. 그것이 시작부터 중간을 거쳐, 끝까지 너희에게 많은 슬픔을 초래했다. 이곳은 죽음의 땅이며 사창가이다. 라마는 신인들의 왕국이 있는 사원에 쉬바라야를 창조하고 있다. 그러나 언제, 어떻게 그들이 왕국을 차지했느냐? 너희는 지금 이것을 안다. 세상 사람들은 신과 여신들이 결코 환생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어떤 중요한 사람이 이런 것들을 이해하게 되면 그 소리가 퍼져나갈 것이다. 아무도 가난한 이의 말은 듣지 않는다. 너희 중에서도 역시, 등수대로 이것을 혼습한다. 단 하나의 학교와 한 분의 선생만이 있지만, 학생들은 모두 등수대로이다. 앗차.

가장 다정하고, 사랑스럽고, 오랫동안 잃었다가 이제 다시 찾은 자녀들에게, 어머니이며 아버지인 밥다다가 사랑과 기억과 아침인사를 보낸다. 영적인 아버지가 영적인 자녀들에게 나마스테.

실천 요지:

1. 어떤 마야의 공격으로부터도 안전하게 지내려면 지니가 되어 계속 알파와 베타를 기억해라. 요가의 힘으로 너희 머리 위에 얹힌 죄의 짐을 없애라. 초감각적인 기쁨 속에 머물러라.
2. 입으로 그저 쉬바의 이름만 되뇌지 말아라. 아버지에 대한 참된 사랑을 가져라. 가시를 꽃으로 바꾸는 봉사를 하며 바쁘게 지내라.

축복:

정확하게 봉사함으로써 즉각적인 결실을 먹고 마음과 지각이 변함없이 건강해라. 봉사에서 요그육트하고 정확하다면 봉사의 결실로 너희는 행복과 초감각적인 기쁨을 경험하고 더블 라이트하게 될 것이며 너희는 즉각적인 결실로 틀림없이 아버지의 미덕을 한두 가지 경험한다. 즉각적인 결실을 맛보는 자들은 마음과 지각이 항상 행복한 상태로 머문다. 너희가 만일 나약하다면 그 경우에는 너희가 즉각적인 결실을 먹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라. 즉각적인 결실은 너희를 항상 건강하게 만들고 이런 이유로 너희들의 구호는, “항시 건강하고 항시 부유하며 항시 행복해라”라는 것이다.

슬로건:

모든 행동에서 아버지 브라마를 드러내는 자들이 카르마 요기 영혼들이다.

***** 옴 산티 O M S H A N T I *****